

## 테글렌의 반려견 이야기

많은 방문객들이 테글렌을 방문했을 때 기억하겠지만 수녀원 바로 뒤편에는 당나귀와 염소가 있었습니다. 당나귀와 염소를 보고 사진을 찍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당나귀는 사진 찍기 좋은 동물이었지요.

안타깝게도 정원사가 은퇴하면서 동물들을 떠나보내야 했고, 당나귀와 염소를 돌봐 줄 적당한 대체 인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집에는 이미 개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머

저희는 부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이 왔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았고 수의사에 따르면 오래 살지는 못할 상태였습니다. 부머는 수녀원에서 아주 잘 적응했고 (모든 응석과 매일의 산책 덕분에) 수녀님들과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로마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수도원의 개들에게 익숙했던 요안니타 수녀는 마침내 개를 키우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부머가 17 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 그를 떠나 보냈습니다. 케이트의 잉글리시 코커 스페니얼인 발루도 함께 키우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발루는 케이트가 이곳에 있을 때 일주일의 절반만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반려견 없이 지내야 했기 때문에 낯선 기분이 들었지요.



실비아 수녀와 록시, 발루 시니어

발루는 어렸을 때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며 수녀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약간의 장난기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발루가 없을 때면 강아지가 그리웠답니다.

부머를 잃고 1 년 넘게 슬픔에 잠긴 케이트에게 다른 수녀원 개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를 밖으로 내보내려면 침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아주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저희는 잘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케이트는 농장 바깥에서 평생을 살았던 4 살짜리 록시라는 개를 데려왔습니다. 저희는 케이트에게 큰 개와 긴 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짐작해 보세요,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케이트는 꽤 큰 크기에 긴 털을 가진 록시와 함께 도착했지 뭐니까! 록시는 베르너 세넨과 보더 콜리의 교배종입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록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위험을 감수하고 수녀들을 위해 입양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발루 주니어와 함께한 카니시 수녀

케이트는 록시를 입양하기 위해 유기견 보호소에 갔을 때 두 개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발루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둘은 밀폐된 공간에서 1 시간 30 분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잘 어울린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놈을 꼭 테겔렌에 데려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록시는 농장에서 양치기 개와 함께 살았는데, 주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은 양치기는 원했지만 록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록시가 다른 개를 받아들일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록시는 우리와 함께한 지 5 년이 되었고, 우리는 기꺼이 록시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처음에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진공청소기 소리를 무서워했습니다. 위층에 사는 수녀들을 침입자라고 생각하며 짖기도 했지요. 하지만 곧 집안의 모든 소음에 익숙해졌고 모든 수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록시는 우리를 미소짓게 합니다. 좋은 동반자이며 훌륭한 경비견입니다. 보호심이 아주 강하고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면 짖어댁니다.

지난 1 월 케이트는 발루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발루의 마비 증세가 악화되어 잠들게 한 것입니다. 케이트는 발루를 몹시 그리워했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케이트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2 월 초에 또 다른 잉글리시 코커 스페니얼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또 다른 코커 스페니얼로서, 이름을 발루라고 지었습니다. 아무도 새로운 이름에 익숙해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수녀들에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은 도무지 거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발루 주니어

이렇게 록시는 이제 자신에게 달려들어 성가시게 만드는 강아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심해지면 록시는 강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록시가 강아지에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아름의 사랑은 다시 기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강아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두 팔 벌려 이 녀석을 받아들였죠.

사랑하는 수녀님들, 예전에는 개를 수녀원에 데려오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생각이 유연해진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룩시와 함께한 오딜리아 수녀

룩시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녀석에게 먹이를 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응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룩시는 저를 자기 윗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룩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녀들은 룩시를 보면 멈춰서 이야기를 나누고 쓰다듬습니다. 강아지 발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식사 중에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식탁에서 할 이야기가 많지 않으니까요. 사실 개를 키우면 많은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개가 있으니 더 많이 움직이고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개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개는 노인들에게 그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수녀님들, 부머, 룩시 또는 발루와 같은 반려견을 두시는건 어떠신가요? 물론 공동체 가족 전체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지요.

수녀님들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실비아 수녀